당파적 정치 논쟁 휘말려드는 '꿈의 제국' 디즈니

NYT "모두를 위한 브랜드였던 디즈니, 진보·보수 모두서 공격당해"

"예술 창작품을 '정치적 올바름'으로 판단하면 창의력 위축" 지적도

수십 년간 논쟁을 회피하며 '꿈과 환상'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구축한 디즈니가 당파적 정치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1923년 창립 이래 디즈니가 할리우드에서 독보적 위상을 유지해왔다고 진단했다.

이 회사의 가족 친화적인 영화와 드라마, 테마파크의 놀이기구는 '모두를 위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다. 디즈니는 열성을 다해 잠재적인 정치·문화적 함정을 피해왔다.

디즈니란 브랜드는 별에 소원을 빌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실세계의 추함이 디즈니의 마법 왕국으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극도로 정파적인 세상에서 양 정파가 모두 디즈니를 두들겨대며 많은 이에게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디즈니 브랜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디즈니 스스로 문화적 쟁점과 관련해 입장을 취한 경우도 있다.

일례로 지난여름 디즈니는 자사 테마파크에서 관람객에게 하는 안내 방송의 문구를 젠더(사회적·문화적 의미의 성별) 중립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사 숙녀 소년 소녀 여러분"이란 문구를 '모든 연령대의 꿈꾸는 이들'(dreamers of all ages)로 변경한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극우 진영에선 이를 두고 으르렁댔다.

최근 플로리다주가 도입해 미국 사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된 동성애 관련 교육 금지법과 관련해선 이리저리 떠밀리다 보수·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는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수업·토론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디즈니는 애초 이 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성 소수자 옹호단체 등이 디즈니의 침묵을 비판하고, 직원들이 항의 파업에 나서자 디즈니는 플로리다주에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폭스뉴스 진행자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디즈니 때리기에 나섰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지자에게 보낸 정치자금 후원 요청 이메일에서 "깨어 있는 디즈니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할 모든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 플로리다 주의원들은 55년간 올랜도의 놀이동산 '월트 디즈니 월드'의 부지를 개발하고 지방정부처럼 관리할 권한을 디즈니에 부여했던 법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디즈니를 보이콧하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트윗들은 최근 수백만명에게 "마음에 든다"는 반응을 받았다.

NYT는 "디즈니는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않게 하려다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디즈니의 창립자인 월트 디즈니는 반(反)노조 성향의 보수주의자였다.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의 입구에 있는 '메인스트리트 USA'에서는 애국주의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하지만 2005~2020년 디즈니를 이끈 로버트 아이거 전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디즈니의 색채를 바꿔놨다. 디즈니의 배우 캐스팅과 서사에서 다양성과 포용, 평등 등을 강조하도록 한 것이다. 캐스팅이 거의 전부 흑인으로 이뤄진 블록버스터 영화 '블랙팬서', 여성 주인공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인 '스타워즈' 시리즈, 다양한 인종·문화·민족성을 선보인 '모아나', '코코', '소울', '엔칸토: 마법의 세계' 같은 애니메이션은 그 결과물이었다.

이들 작품은 상업적으로 잇달아 흥행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일부 관객에겐 반발을 샀다.

디즈니 내부에도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 한 임원은 예술적 창작물을 '정치적 올바름'(PC)의 필터로 보는 일이 창의성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아이거 CEO의 뒤를 이어 디즈니의 새 선장이 된 밥 체이펙 CEO는 지난달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양성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기업으로서 우리의 선언"이라며 "그리고 그것은 어떤 트윗이나 로비 활동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크라 사태 공급망 혼란 세계 신흥국 부채위기 심화 41개국 이미 채무 부실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신흥국들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흥국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세계 신흥국이 지난 10년간 저금리·저물가 환경에서 부채가 쌓인데다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을 늘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사태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공급망 혼란으로 물가가 오르자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책을 고민하는 시점에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면서 경제 기초체력이 약한 신흥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탄탄한 경제 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부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선진국과는 달리 많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일라 파자르바시오글루 전략정책심사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한 해 동안 세계 각국 정부·기업·가계 부채 총액의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8%포인트 상승, 256%에 달했다면서 이는 1·2차대전 이후 본 적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제 채무상환 유예 프로그램 대상국으로 지정된 저소득 국가 73개국 중 약 56%인 41개국이 이미 부채가 부실화됐거나 부실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IMF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공습 규탄 아프간 시위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동부 호스트에서 파키스탄군의 공습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아프간 집권 세력 탈레반은 파키스탄군의 공습과 포격으로 접경 지역인 호스트주 등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4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올해 중국 인구 감소 원년 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중국 인구가 올해 처음 감소하고 203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빙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은 17일 칭화대 금융대학원 학술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예측보다 중국 인구 감소가 10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에 중국 인구는 42만 명 증가했으나 출생 인구가 1961년 이래 가장 적었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이 203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정 주임은 전망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작년 17%에서 2030년 25%, 2050년 43%까지 높아져 선진국 수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저축률은 7~8%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 부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노년 부양비까지 상승하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양로금(국민연금)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들었다. /연합뉴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 대만 실효지배 섬 활주로 확장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도 실효 지배 중인 일부 섬에서 활주로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의 분쟁에 대만도 가세하는 형국이어서 주변 국가들의 영유권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만 연합보는 18일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공군사령부가 최근 대만이 실효 지배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의 활주로 확장 공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활주로 확장 공사는 미국 측의 사전 동의를 얻은 대만이 국가 안보 부처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활주로 길이가 기존 1150m에서 천500m로 늘어나 필요할 경우 군용기의 이착륙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일부 섬에 대한 군사화 작업에 나섬에 따라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의 활주로 확장 공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만 정부가 타이핑다오 부두의 준설 공사와 함께 진행하려던 부두의 길이 연장 공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대만 공군사령부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타이핑다오 활주로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유보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